

Vol. 24

2015

<http://www.em21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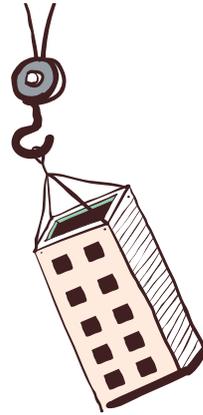
EM실천 우수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해외연수팀이
2015년 2분기 표지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줄좌측 : 양현모팀장, 박동진주임, 이지영, 손선애, 김인정, 박경아팀장
뒤줄우측 : 김재우, 허재혁, 박수현대리, 이원곤

Contents

2015 Vol.24



06

- 06 ISSUE 국회의장 방문
- 08 제35회 장애인의 날 행사 및 국회의장 내방
- 12 숲체원 “숲속으로의 일상탈출”
- 16 우수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해외연수 “꽃보다 대만”
- 22 2015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종사자 단합 등반대회 ‘우리는 한울’

24

- 24 운영위원회 / 가족회
- 28 간추린 뉴스





희망 실천

2015 Vol. 24

30

30 후원 · 자원봉사 · 신규훈련생모집 · 실습생 모집

발행일

2015년 5월 6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1002호
TEL. 02-875-9744, 9733
FAX. 02-875-9965
<http://www.em21c.com>

편집디자인 · 인쇄

EM실천



희망실천은 이엠실천 홈페이지
www.em21c.com에서 전자책(e-book)
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정의화 국회의장 EM실천 내방

정의화 국회의장은 4월 20일 '제35회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EM실천' 을 방문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육체적·정신적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며 “장애인 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나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방문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며 “ 'EM실천' 의 사례가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 시설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작업장으로 이동해 인쇄 작업과정에 직접 참여한 후 근로장애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2015. 4. 20 아주경제뉴스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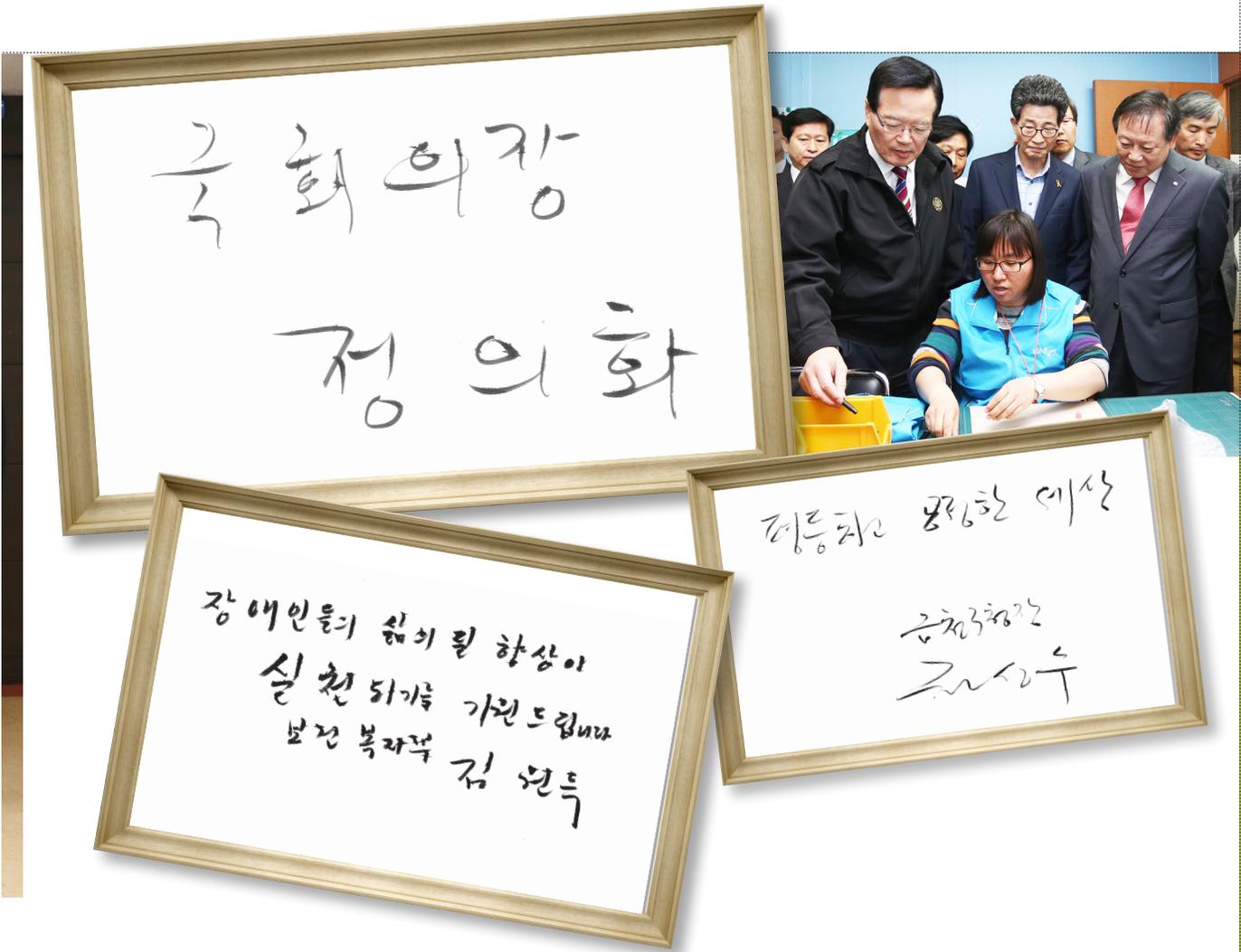


제35회 장애인의 날

2015년 4월 20일, 제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의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차성수 금천구청장, 한국
직업재활시설협회 김영화회장 등 약 20여명의 인사들이 EM실천을 방문하였습니다.

EM실천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이야기, 근로장애인들이 직접 참여
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쇄사업실과 우편발송실에 직접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근로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과 '일' 을 통해 얻는 성취감,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전해 들었다.



장애인에게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병은 재활을 통해서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일 또한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EM실천의 사례가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 시설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방문을 통해 EM실천의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날이었으리라 생각되며, 점차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1년 36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01

정의화국회의장과
근로장애인들의
Talk! Talk!

정의화국회의장

이 기계는 무엇인가요(정합기)?

날장으로 된 인쇄물을 한바퀴 돌아가며, 한권의 책으로 묶는 기계입니다.

신영권

정의화국회의장

하루에 몇시간 일해요?

8시간일합니다.

신영권

정의화국회의장

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다.

신영권

정의화국회의장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김재우

정의화국회의장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선진적인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이목희 의원

정부가 투자를 해야합니다. 지금은 신체적 능력만 가지고 정신장애인, 일부 지체 장애인만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신체능력만 보지 말고 직업적 능력을 검사하고 특성을 분석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02

정의화국회의장

디자인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디자인 주요 업무는 각종 책자 및 카탈로그 등을 디자인해서 인쇄, 현수막팀에 인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대리

정의화국회의장

어디에서 디자인업무를 배웠어요?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일 년 정도 배웠습니다.

김지현대리



03

의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대리



글_사업지원팀 팀장 권장윤

1일차

먼거리를 달려와 도착한 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의 청태산 자락에 있는 숲체원은 해발 850m 산등성이 아래 피톤치드 음이온 테르펜으로 가득 차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특별한 숲이었다.

도착해서 먼저 배정된 숙소 조 편성을 확인하고, 쾌적한 숙소에 먼 거리로 지친 몸과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가졌지만 그것도 잠시 조별로 저녁에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위한 조별 장기자랑을 위해 각 숙소별로 노랫소리와 차창가로 보이는 울동 등 각 조별로 장기자랑 준비에 평균연령이 40대에서 20대로 급상승 한 듯 보였다. 휴식이 끝나고 조별로 숲 해설가의 인솔지도하에 다양한 나무, 식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역할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봄이지만 강원도 횡성은 아직 낮은 기온으로 식물들에서 느끼는 봄을 만끽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밀려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새찬 바람이 삼림욕을 방해로 아쉬움이 더했다.





숲속으로의 일상탈출

강원도로 향하는 마음은 왠지 도심의 묵은 때를 벗겨 버릴 것 같은 설레임이 가득해집니다. 강원도 횡성 태기산 아래 위치한 자연과 함께 만나는 햇살이 가득한 숲이 있는 숲체원을 향해 일상생활에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버스에 몸을 싣고 고~고~쌩~

그렇지만 나무와 식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조금씩 아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숲체원의 데크로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도 산 정산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1시간 이상의 숲 해설가와와의 힐링산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휴식시간부터 준비해온 장기자랑의 시간.... EM실천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각 조별로 준비해온 노래와, 장기자랑을 마음껏 발휘하며, 직원과 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교류하며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며 1일차를 마무리 하였다.

2일차

2일차 어제 밤부터 내린 비가 그치길 바랐는데 아침까지 비가 이어졌다. 빗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천으로 인해 삼림욕 대신 실내에서 조별로 카프라게임을 통해 EM실천 가족들의 협동심과 팀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연말연초 바쁜 시기에 각박해져 있던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 곧 여름캠프도 다가오는데 회원들과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숲체원 '숲속으로의 일상탈출'



소감 한마디

조하란

4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숲체원을 가는 날이었다. 약간은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강원도 횡성에 도착해서 숙소가 아담해서 좋았고, 식사도 맛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노래 부를 차례가 와서 떨리기도 했는데, 이진숙실장님과 김지현대리님이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었고, 1등을 해서 너무 좋았다. 숲체험을 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안내해주신 이름표이다. 그 이름은 '산오빠'이다. 숲체원에서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특히 막대기로 하는 목재카프라가 가장 재미있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만에 끝이 나서 조금 아쉬웠을 정도네요. 숲해설가를 따라 다니며 산책을 할 적에 저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녀간 곳이라 어느 정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약을 일찍 먹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놀다 잤지만, 다음 날 일찍 일어나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적에 왠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것 같았는데, Ref가 옛날 가수인데 잘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션임파서블은 하기 싫었는데 다행히도 밖에 비가 와서 카프라를 하였습니다. 이번은 내가 방장을 맡았고, 회원들의 가족 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혁수



명부선

숲체원을 갔다와서 보람도 있었고, 노래자랑에서 1등도 해서 기분이 좋았다. 사는 일이 재미없었는데, 재미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동료들과 친밀감을 더욱 증가해서 기분이 좋았고, 숲과 산에서 산들바람을 즐겨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같이 가서 아빠를 더욱 알게 되고, 아빠가 산에서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품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힐링이 되는 여행이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적당히 내려 가슴까지 깨끗이 씻어주는 정화의 시간이었다. 조별 장기자랑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비가 와서 야외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 했지만, 목재카프라로 건물을 만들고, 우리만의 마을을 만드는 작업은 서로 간의 신뢰와 협동심을 고취하여 좀 더 끈끈한 동료애가 생길 수 있도록 했다. 다음 기회에도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임영호

숲체원이란 말 그대로 숲 속에서의 숲구경이었다. 숲구경에 보조로 일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알고 보는 숲 구경 거리가 되어 좋았다.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들었던, 활엽수, 침엽수라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들을 수 있었다. 물통에 나뭇가지 하나가 섞여있는 모습을 한 후, 한참 후에 파란색의 물빛을 내는 광경으로 우리를 숲속 나무의 빠져들게 하는 신기하고 기분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더 가다가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며 서로의 장기를 볼 수 있었다. 노래를 한 곡 부르며 즐겁고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다. 좋은 풍경과 구경거리를 창으로 맛보며 그 날을 멋지게 보내어 앞으로 올 스트레스에 지칠 걱정없이 좋은 기분으로 숲 속에서 구경하며 내려왔다.

신영권



EM실천 우수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해외연수

꽃보다 대만

2014년 연말.. EM실천 인사평가를 통해 10명의 우수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가 선발되었다. 이에 대한 포상으로 대만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글_디자인실 팀장 박경아

- 일 정 : 2015. 4. 15. ~ 18.
- 참여자
 - 이용장애인 : 김재우, 허재혁, 박동진, 김인정, 손선애, 이지영(6명)
 - 종사자 : 양현모팀장, 박경아팀장, 박수현대리, 이원곤(4명)
- 목적 : 운영규정에 기반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함. 여행을 통한 힐링,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일차

아시아 최고층 빌딩 508m의 '101타워'

빌딩모습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대나무 위에 꽃잎이 겹겹이 포개진 형상이며, 건물에는 8개의 마디가 있는데, 이는 주오하 문화권에서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숫자 '8'을 염두해 둔 것이다. 타이베이 시내 어디서든 보이는 101타워는 아시아 최고층, 세계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건물이다. 5층부터 89층까지 37초만에 도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유명하다!

장개석총통을 기념하기 위한 '중정기념당'

중화민국 초대 총통인 장개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1975년 서거 후 다음해 타이완 행정원에서 중정기념당을 건립하였다.

‘니하오! 타이완!’

EM실천 해외연수단은 쌓여있는 일들을 제쳐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 대만으로 훌쩍 떠났다. 수도는 타이베이이며, 북부지역은 아열대기후이며, 남부지역은 열대성 기후를 띤다. 고구마 모양의 대만



도교와 불교 2가지 종교가 함께 살아 숨쉬는 ‘용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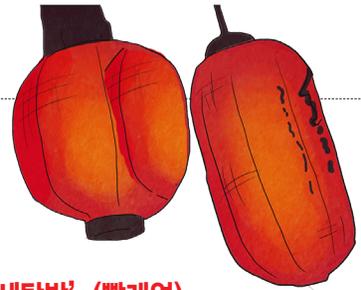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사원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원이다. 변화한 도시 중앙에 위치하여 불교사원과 도교 사원, 민간신앙이 복합되어있다. 대만의 종교문화를 엿볼 수 있다.

현지인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야시장’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사원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원이다. 변화한 도시 중앙에 위치하여 불교사원과 도교 사원, 민간신앙이 복합되어있다. 대만의 종교문화를 엿볼 수 있다.



2일차



대만 사회복지시설 연수 '심로사회복지기금회부설 심로세탁방' (빨래업)

심경 기금회가 심경 세탁 골목을 설립하고, 서비스 취지에 심신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 기회를 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 심신 장애자를 길러 양호한 작업 태도 및 작업 기능을 양성하고, 작업을 통하여 자아 긍정을 증진하고 있다.



대만의 현충사 '충열사'

충열사는 내전과 항일운동시 전사한 군인과 열사의 영령을 모신 곳으로 충열사는 내부공개는 안하고 있지만, 열사사의 위패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충열사로 가는 이유는 매시간 이뤄지고 있는 위병교대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본전부터 정문까지 이뤄지는 절도있는 위병식 보러 고고!!

장개석총통의 개인 관저 '사림관저'

1950년부터 장개석 총통과 그의 부인 송미령 여사의 거처였던 사림관저는 사실 타이완이 일본 지배하에 있었을 때 원예시험장이었다. 1966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림관저공원은 중국식, 유럽식, 일본식의 정원과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며 장미가든 등 여러 주제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생태관, 온실 등의 원예시설도 남아 있으며, 송미령이 타고 다니던 차, 장개석이 다니던 교회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개방된 이후로 학교에서 견학으로도 자주 올만큼 보존이 잘 되어있는 자연환경과 꽃장식으로 만들어진 동물 형상 등 타이베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



중국 5천년 역사의 보고, 세계 4대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이 박물관에는 중국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동할 때에 대륙에서 가져온 문화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박물관이 소장품의 수는 69만 6112개나 되어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워낙 유물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3개월에 1번씩 전시하는 소장품을 전부 교환하고 있어서, 모든 소장품을 관람하려면 8년정도 걸린다고 한다. 2001년부터 소장품 보호를 위해 박물관 건물을 보수하고 있다.



대만의 최대 번화가, 대만의 명동 '서문정거리'

서문정 거리 이곳은 최초로 형성된 보행자거리로서 각종 대형 쇼핑몰들이 뻗뻗이 들어서 있다. 완니엔, 라이라이, 청핀 등 대형쇼핑센터와 백화점들은 물론이고 거리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의류, 신발, 잡화, 음반 등을 판매하는 상점과 버블티와 각종 먹거리를 진열해 놓고 파는 길거리 음식점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영화관이나 노래방 등 기타 휴식공간과 위락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휴일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 서문정 거리를 메운다. 또한 유명 스타들의 싸인회와 콘서트 등의 행사도 자주 열려, 영화나 음악메니아들로 항상 북적대는데 이것 역시 서문정의 특색 중 하나이다.





3일차

대만 사회복지시설 연수 '강북지우협회부설 노무복무중심' (정결서비스업)

서비스 대상으로 타이베이에서 거주하는 것을 세워 (특히 쑹산, 네이후호 지역 안)에, 타이베이시 정부 사회 국이 조사하여 발행한 심신 장애 수첩의 심신 장애자를 영유하고, 15-65세의 나이 범위로 우선적으로, 만일 중심에서 서비스의 대상을 우선하고, 중심의 이해에 당신도 필요할 수 있는 협조 후, 기타 적당한 서비스 단 위에서 소개하도록 협조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특한 형상의 바위로 가득찬 '야류국립해양공원'

야류해양공원(Yehliu-예류 지질공원) 으로 이곳은 천 백년동안 석회질의 사암이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기묘묘한 모양으로 변하여 늘어서 있는 해양 공원으로 "여왕 바위", "버섯바위", "벌집바위", 등의 신비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는곳으로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지금은 대만의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천등을 날린 '스펀'

밤하늘 수놓는 아름다운 천등이 있는 마을 스펀. 핑시선의 기차길 양옆에는 천등 가게, 기념품, 먹거리 상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어우러져 스펀을 지키고 있다. 각 마을마다 테마가 있는 핑시선 여행답게 스펀에도 가장 매력적인 것을 찾으면 바로 천등을 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지인 '지우편거리'

지우편(九份)은 타이완 북부 신베이 시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모든 거리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 아홉 집밖에 없던 외진 산골 마을에는 항상 아홉 집 것을 함께 구입해 아홉개로 나뉘었다고 해서 '구빈(九份)'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청나라 시대에 금광으로 유명해져 이 도시가 유명해졌고, 인구가 많아 지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아메이차로우, 비정성시라는 찻집이 있다. 특히, 아메이차로우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길의 모델이기도 하다. 또한 이 마을은 비정성시, 온에어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4일차

대만전통 발마사지 / COME BACK 'KOREA'

대만~ 짜이찌엔
마지막으로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해주신 김영환 원장님.. 따거 쉼쉼!



고구마나라

대만을 추억하며...



클_인쇄사업부 주임 박동진

수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토요일 밤 12시에 서야 집에 도착해 3박4일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변해있다는 것에 감사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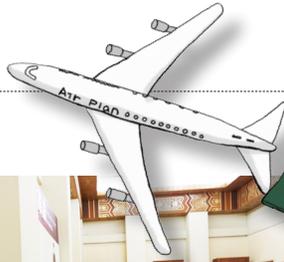
제주도를 가며 처음 타게 된 비행기, 이번엔 대만이라는 곳을 가는 행운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만만치 않은 2시간30분에 비행을 하며 타이완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대형관광버스에 10명에 사람들과 가이드 그리고 운전자 분만이 타고 여행을 하였다.

3박4일에 일정이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듯 했지만, 정성들여 준비한 시간들임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여행을 준비해준 EM실천 및 모든 분들에게 감사에 마음을 품으며 돌아올 수 있었던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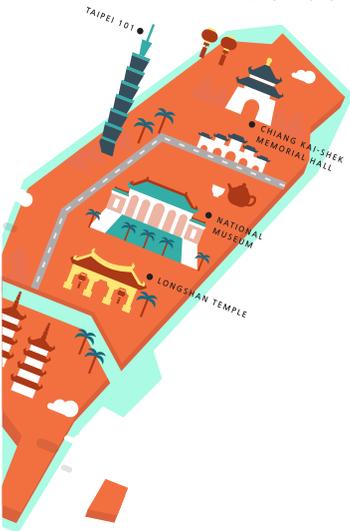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 시간들을 사진으로 조금씩 담으며, 대만이란 곳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거 같다. 안내해 주시는 분에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 이 곳저 곳을 둘러보고 또 추억을 만들어 갔다.





101타워를 시작한 2곳의 복지시설 방문 그리고 타이페이 부근에 유명한 곳을 보고 방문하며 저녁 8시에 호텔로 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날씨가 한국보다 조금은 높았지만 웬지 이해 가고 낯설지 않은 풍경처럼 내게 다가왔던 건 왜일까? 소망을 띄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작게나마 모두에 행복을 빌어 보았고 전망대에서 본 타이페이는 서울 시내를 다시 보는 듯 한 착각을 느꼈고, 장개석총통에 이야기를 들으며 대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떠나오는 날엔 웬지 마음으로 행복해하며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거 같다. 조금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들을 수도 있었고, 음식걱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 보단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왔었던 거 같다.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건 여행기간 중에 시간들이 한국에선 결코 행복한 날들이 아니었음을 와이파이 페이스북으로 엿보며 작은 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던 거 같다. 곁으로 느껴 지진 않았지만 내겐 벅찬 시간들을 힐링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고, 큰 일 없이 다시 한국에 오게 되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또한 품을 수 있었던 거 같다.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EM실천에 감사하며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사진들을 다시 보고 또 보며 잠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음에 감사하려 한다. 요즘 들어 시간에 소중한 내게 일어나는 하루에 대해 큰 느낌으로 다가옴은 왜인지 모르겠다. 내게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며 더욱 작아지는 나로 살고 싶다. 힘내고 사랑하고 싶다.





2015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종사자 단합 등반대회

‘우리는 한울’

글_사무국장 박미선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푸르른 관악산에서 법인산하시설 직원들이 모였다. 이날은 한울법인 남부지부에서 준비한 등반대회로 종사자 100여명이 관악구 신양교회를 시작으로 관악산 입구까지의 등산하는 종사자 단합 등반대회였다.

한울법인 산하시설의 시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10개의 조들은 각자 안전하고 재미있는 단합, 등반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

코스중간에 준비된 준비팀의 힘들지만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은 EM실천의 권장윤팀장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전답사에서 가볍게 등산했던 박미선 사무국장의 조언으로 별다른 부담없이 등반을 했던 직원들은 아껴둔 체력까지 다 썼다며 원망의 소리가 ㅋㅋㅋㅋ
 등산은 이런 고통을 이겨낼 때 참 맛이 나는 거랍니다.(박미선사무국장 日)
 행사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조별 미션을 참여한 모든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수행했으며 재미로 시작한 레크리에이션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보니 진행하고 준비하는 팀도 즐거운 한나절이 되었다.

매년 성장과 도약에 힘쓰는 한울법인의 모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기위해 법인의 이용표 대표이사님도 함께하여 행사를 더욱 빛났고 특히 미션수행에서도 법인의 로고를 잘 이해한 모션까지 취해 사진도 찍으시며 웃으시는 모습, 보기좋았다. 이 때문일까요? 이사장님이 포함된 6조는 멋진 사진으로 포즈상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인사를 다 나누지 못했지만 부딪히고 힘들게 등반하면서
 한울법인의 모든 종사자들 모두가
 '우리는 한울'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



정신적 장애인의 공존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015년 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5년 4월 21일(화) 11:00~14:00
- 장 소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참여운영위원 : 운영위원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강태섭(금천구의회 부의장)
 운영위원 조영준(금천구청 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 박태준(코리아노무법인 경영지도사)
 운영위원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곽 철(이용장애인대표)
 운영위원 최송근(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운영위원 김영환(EM실천 시설장)
 운영위원 박미선(종사자대표)

〈보고안건〉

1. 1분기 운영보고

- 인사보고
- 기능보강 사업보고
- 수익사업 및 지역연계 보고
- 1분기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현황

2. 2분기 운영계획

- 인사계획
- 기능보강 추진현황
- 수익사업 및 지역연계 보고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안건〉

1안. 카페온다 사업종결의 건

2안. 운영규정 개정의 건

2015년 첫 운영위원회를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개최하다. 금번 운영위원회는 이용표 운영위원장, 강태섭 금천구의회 부의장, 조영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과장을 비롯 총 9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금천구립보호작업장과 EM실천의 운영에 관련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35회 장애인의 날의 맞이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EM실천을 내방한 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서비스 직종으로의 사업개발을 모색하던 EM실천의 카페온다 사업의 종결과 운영규정개정에 대한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비스 직종에 대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개발의 기초가 될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가족회



날로 날로 참여률이 높아지는

희망회

2015년 두 번째 가족모임이 있었습니다. 훈련생과 근로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들이 15명이 참여를 했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뒤로 하고 많은 가족과 보호자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번 가족회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5년 4월의 행사들에 대한 안내와 5월, 6월의 일정안내, 내부 상황평가에 대한 개인상담들이 있었다. 즐거운 장애인의날 행사, 대만해외연수와 조금은 민감하면서 무거운 내부 평가에 대해 가족 및 보호자 모두가 귀기울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어떤 기준에서 일을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가족과 기관과의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중요한 일정이 되고 있다.

매회기 가족회 참여를 통해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서비스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새롭게 EM실천을 이용한 신규훈련생의 가족, 보호자들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직업재활 시설은 직장이 아닌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모색하기위한 목적시설임으로 가족들의 참여과 관심이 참여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모두가 알아주시면 한다.

EM실천에는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 보호자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모임을 할 때 마다 느끼게 된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족모임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해 지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임을 이제는 느끼게 됨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5년 1분기

NEWS

명절프로그램 '설맞이 큰잔치' / 2015.2.13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EM실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을 이루어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외부직업평가 / 2015.2.24-25

2015년 신규 훈련생 및 일부 이용장애인의 외부직업평가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모두들 차분히 평가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동아리 'DIY공방작업소' / 2015.3

올 해의 신규동아리인 DIY공방작업소 동아리에서는 첫 회기로 '펠트' 를 이용한 미니동물 브리지 만들기 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펠트 완성품을 구경해보세요~



우편발송사업 장비매입 '봉투출력기, 접지기' / 2015.3

우편발송사업 중고장비 '봉투출력기, 접지기'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번 장비매입을 통하여 우편발송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편발송사업부 파이팅~~

봄 나들이 '숲체원' / 2015.4.2-3

중사자 및 이용장애인이 강원도 황성에 위치한 청태산으로 1박2일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오랜만의 나들이로 EM실천 가족에게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청태산 숲체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장애인 내부평가 '상황평가' / 2015.4.6-10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별 1분기 내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기능, 직업기능, 직업관련 사회행동, 직무관련 기능, 생산성, 지속성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성장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컨설팅 보고

/ 2015.4.7

EM실천에서는 9개월가량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을 통해 EM실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EM실천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외연수 '꽃보다 대만'

/ 2015.4.15-18

2015년 우수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총10명이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세탁업을 하는 장애인시설과 취업을 연계하는 협회방문을 통해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35회 장애인의 날 '장애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일한다.' / 2015.4.20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1차로 국회의장님이 오셨고 2차로 EM실천의 두 기동인 인쇄사업실의 신영권주임과 현수막사업실의 광철주임으로 두 개의 조를 나누어 영화관람 및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울법인 종사자단합등반대회 '우리는 한울'

/ 2015.4.24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남부지역의 주최로 실시되는 등반대회에 EM실천의 종사자도 참여하였습니다. 조별 미션을 통하여 법인 산하시설의 직원들과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1등으로 미션을 수행한 조는 어느 팀이었을까요~?



2015년 2분기 PLAN

독일연수단 내방예정

/ 2015.5.27~6.1

독일의 직업재활시설사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내빈이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EM실천에 내방예정입니다.

여름캠프

/ 2015.6.18~20

여름캠프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간다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나눔을 통한

희망실천

자원봉사자 모집

EM실천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용장애인, 종사자와 함께 소통하실 자원봉사 가족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거나 혹은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참여를 기다립니다.

1. 소통 분야(모집분야)

- 소통① 교육 분야
- 소통② 직업 분야(컴퓨터교육, 직무지도 등)
- 소통③ 여가 분야(사진촬영, 볼링 등)
- 소통④ 함께 일하며 이용장애인과 동행 해 주실 분

2. 활동시간 : 평일 9:00~18:00(시간 및 일정 조정 가능)

3.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행(VMS, 1365)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자 연락처 : 02-875-9744 / 070-7825-8945
 (사업지원팀 대리 박수현)
 홈페이지 : www.em21c.com
 E-Mail : em21c@hanmail.net

후원자 모집

■ 직접후원

후원계좌 (예금주 : EM실천)
 하나은행 577-910004-99104
 농협 301-0104-7345-41
 우리은행 1005-202-023861

Thank you...

■ 2015년 1/4분기 자원봉사자 명단

- 1월 - 유승주, 신예은, 김혜지,
- 2월 - 신석호, 임소연, 김태균, 오하진, 박승훈,
강한솔, 유호연, 이승호, 이종현
- 3월 - 서여진, 천아정, 서민지

■ 후원

[정기후원]

김태현, 이병헌, 권장윤, 김영환, 이효상, 이복상

[비정기후원]

윤명숙

[물품후원]



윤혜숙(과자9박스)



김예순(두유2박스)

"EM실천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EM실천입니다.

새로운 도전 및 시작을 꿈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 적응훈련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EM실천에서의 적응훈련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보호자 및 각 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일정 : 2015년 5월 1(금) ~ 채용시까지

■ 근로조건 : 오전 9시~18시(주5일 근무, 점심시간 12시~13시)

■ 모집 분야

현수막 출력, 인쇄/디지털복사 출력, 우편발송/데이터출력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의뢰서 1부(기관의뢰서 해당)

■ 모집대상

- 만 19세이상~55세 이하 등록장애인
- 금천구 거주 장애인 우대(희망자, 적격자 없을 경우 서울권 내 거주 장애인 선발 예정)
- 직무활동,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
- 모집분야의 역량개발이 가능하다고 기대되는 자
- 컴퓨터 활용자 우대

■ 채용절차

- 공고 ▶▶ 서류 접수 ▶▶ 면접(일반상담, 초기면접) ▶▶ 사례회의 ▶▶ 현장적응훈련실시

■ 접수방법

사전 전화 상담 후 서류제출(추후 면접일자는 조정예정)



연락처. 02-875-9744(운영지원팀 양현모 사회복지사)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6차 1004호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1. 진행일정

- 모집기간 : 2015년 5월~7월
- 선발공지 : 서류접수후 개별적으로 면접진행예정(구체적 일정은 선발후 진행)
- 모집방법 : EM실천 기관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등록기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21cc@hanmail.net)
- 실습기간 : 하계방학중(09:00~18:00 20일간, 160시간)
- 장 소 : EM실천 기관내
- 내 용 (직업재활서비스 및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내용)
 - 1) 직업재활시설의 이해
 - 2)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현황
 - 3)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 4)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 6) 사회복지 행정교육

2. 모집인원 : 2명

3. 실 습 비 : 100,000원 / 종식비별도

4. 실습담당 : 운영지원팀

5. 제출서류 : 실습신청 및 프로필 (기관홈페이지참조)

